

## ▣ 깔따구의 특성

- 모기와 비슷한 형태이나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호흡습성이 없음
- 알, 유충, 번데기 모두 수서생활을 하며 진흙속의 유기물을 섭취함
- 성충은 저녁 해질 무렵 혹은 직후에 군무, 봄 가을에 대량 발생
- 불쾌감 및 알레르기 유발가능성은 있으나 감염병매개 곤충으로 볼 수 없음

### ▶ 깔따구 실제모습



## ▣ 깔따구의 생김새

- 크기가 11mm쯤 되며, 머리는 작고 황갈색이다. 등면은 흑색 겹눈과 촉각이 차지하고 있음. 수컷은 촉각이 12마디인데, 제1마디는 크고 원모양이나 나머지 마디는 전체적인 모양이 채찍처럼 생겼으며 암갈색이 각 마디마다 긴 깃털 모양의 털이 아주 뽁뽁하게 자라고 있음. 제2~11마디의 각 마디는 매우 짧은 고리 모양이고 제12마디는 상당히 김.
- 암컷은 촉각이 6마디이고, 연한 색이며 짧다. 날개는 투명하고 황색을 띠며, 시맥(翅脈)은 황갈색임. 다리는 암갈색에서 시작하여 황갈색으로 이어지고, 끝으로 감에 따라 암색으로 됨.
- 이른 봄부터 출현하고 유충은 연못에 흔히 있음.
- 한국·일본·유럽·북아메리카 등에 분포함